

63세 K씨는 행복한 결혼생활이었으나 부인이 자궁암으로 고생하다 타계하게 되었다. 그는 외도한 적도 없이 지난 6년동안 자위행위도 하지 않고 금욕생활을 했다. 부인이 타계한 후 중년의 여성을 사귀게 되었고 처음엔 죄의식에 거

성(性)-정년이 따로 없다

편집실

절하다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으나 결국 발기가 되지 않아 실패하게 되었다. 여생을 함께 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지만 여전히 실패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검사결과 신체적으로 문제는 없으나 죄의식, 열등감과 함께 실패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다.

“ 노인의 이성에 대한 관심과 욕구는 젊은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다.

'성의 정년'이라는 것은 이제 없다. 성의 대한 문제는 바로 삶의 문제인 것이다. ”



위의 사례를 통해서 볼때 성에 대한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지만 나이가 지긋한 분들의 성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부분은 아니다. 성에 대해 여전히 전통적으로 은폐되고 금욕을 강요하는 사회에 속해있기 때문이다.

노인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노인의 대한 문제와 그에 따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노인의 성문제는 생활기반, 환경 등과 관련된 문제로 배우자의 사망, 심신의 질병, 연령이 높다는 것 때문에 사회 문화적 편견과 차별의 문

제, 경제 문제 등과 연결되어 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체적인 기능과 성적인 기능은 퇴화된다. 남성이 발기부전이 되는 경우 남성성의 의미로서 아이덴티티를 상실한다는 불안감이나 자신감의 상실, 우울증과 연결된다는 문제를 갖는다.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으로 오는 기질적인 문제도 있다.

노화에 의한 자연스러운 기능장애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남성호르몬 보충요법, 보형물 삽입술 등 자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적절한 치료방법을 찾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성의 경우도 폐경이 오면 성적 자아를 상실하는 시점으로 생각하고 우울증에 빠지는 등 문제를 갖게 되는데 호르몬 치료 등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치료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도 필요하다.

노인의 이성에 대한 관심과 욕구는 젊은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다. '성의 정년'이라는 것은 이제 없다. 삶의 과정으로 남성으로서, 여성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이 될 것이다. 여성과 남성의 성기능 장애는 노년기가 되면 누구나 겪게 되지만 노령화 인구가 늘어나고 연령도 높아짐에 따라 그 문제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노인의 성 문제는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편견에 의해서 그 의미가 간과되고 있다. 노인에게 성이라는 것은 웃음거리나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노인이라는 신체 생리적 핸디캡이 성적 욕구를 현실적으로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욕구 자체를 부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성에 대한 관심과 정력을 과시하는 경우 여지없이 '주책'이 되기도 한다.

노인에겐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노인의 성생활 또한 중요하다. 규칙적인 성생활이 뇌의 노화나 치매 등의 진행도 억제하며 여성에겐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등 신체 건강을 돕는다.

성은 성적 본능에 의한 성행위가 아니라 신체를 통한 자기표출이다. 인간과 인간의 교류과정으로 몸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이해해야 한다. 노인의 성은 다양한 생활의 욕구로 단지 생애 주기 변화로 제약당하거나 차별받을 수 없다.

무엇보다도 능동적인 성생활은 친밀한 인간관계의 표현으로써 삶의 만족도를 높게 한다. 성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가졌던 소외감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자신이 살아 있음을 느낀다. 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고 친밀감의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노인의 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 상담시설과 의료 기관도 필요하다. 노년기에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위한 성교육 등을 통해 성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노인 성생활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인의 성적 욕구는 육체적인 기본 욕구를 넘어 '우울'과 '신체자아'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 노년기의 성은 바로 '위안'이나 '위로'의 정신적인 의미다. 이는 단순한 육체적인 것보다는 심리 정서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노인의 성에 대한 문제는 바로 삶의 문제다. 살아 있다는 것, 삶의 대한 즐거움 등 삶의 의지와 연결되는 문제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PPFK

*참고 -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생애주기별 성교육